

단순함 뒤에 숨은 메카니즘, 건축의 본질 - 건축에서 원숙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Simpleness, social Mechanism, Architectural essence.

- Alvaro Siza Vieira, Rectorado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



임 종 업 / 인하대 건축학부 건축학과
Lim, Jong-Yup / professor
Inha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teatro@inha.ac.kr



그림 1. Alvaro Siza 자화상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알바로 시자의 작품에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작업이 적지 않다. 1993년, 세투발에 있는 교원대학시설인 The Setubal College of Education과 포르투 대학의 건축대학 건물인, Faculty of Architecture of the University of Porto가 있고, 1995년에는 Aveiro에 있는 대학 도서관인 Library of the University of Aveiro를 설계했으며, 2009년에는 빌바오에 모네오의 건축물에 인접해 바스크 대학의 BBK/UPV Head Offices로 사용하는 Auditorium of the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를 설계해 준공하였다. 특히 이 장소는 라파엘 모네오 외에도 시저 펠리와 프랭크 게리 등의 건축물들이 인접해 있어 도시를 이해하며 서로의 건축을 비교해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 신 경영관 Creativity Powerhouse을 설계해 그 계획안이 발표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스페인의 남부 발렌시아 지방의 대표 도시인 알리칸테에 Rectorado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라는 대학 행정 및 연구시설로의 건축이 1998년에 건설되었었다. 본 논고에서 다룰 이 교육시설은 이상에서 상기한 작업과 다소간의 연계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

서는 매우 상이한 접근이라고 보여지기도 한 작업이다. 스페인 남부 지역인 발렌시아에서도 대표적인 항구도시이자 휴양 도시인 알리칸테에 작업한 이 건축은 학장 및 교수들의 연구실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루었다. 에스파니아의 중심부 마드리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알리칸테는 숨겨진 도시 같으나 스페인에서 본토인들이 휴가지로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의 한 곳이다. 이미 B.C. 201년경에 로마인들에게 점령되어 도시의 계획적이고도 구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8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무어인들이 지배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그림 2. Alicante 시 전경

포르투갈에서 조각가로 성장하고 싶어 했던 알바로 시자는 건축이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 이미 장인으로 또

해외 우수교육시설 소개

예술인으로 절대적인 거장의 평가와 면모를 지녔음에 틀림없다.

그는 1982 국제예술비평협회 포르투갈지부 건축상을 시작으로, 1987 콜레지오드 건축가 부문 금메달, 1988 알바알토 메달, 1992에는 건축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프리츠키 건축상을 기본으로, 1995년에는 일본 세계건축가상과 이탈리아 시에트라 국제 건축가상을, 1998년 EEC 미스 반 데어로에 재단에서 수여하는 유럽 건축상과 하버드대학교 도시계획과에서 프린스 오브 웰즈상을 받았고, 2001년에는 울프 예술상과 2002년에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수여받았다.



그림 3. Alvaro Siza 유화상

알바로 시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의 독특하고도 매력있는 조형성과 공간감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술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의견과 달리 조각가를 지향하였었다. 그의 이런 이력이 그의 조형적 관점을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그의 작업에는 분명히 매스의 조소적인 작업이 크게 눈에 드러난다. 그리고 공간에서도 빛과 시야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두드러진다.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비평이론가이기도 한 비토리오 그레고띠는 그의 작업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기술은 한다. “건축과 자부심으로 드러내는 시자의 작업에서, 건축이 예술만을 지향해서 그 가치를 지속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레고띠의 생각에 비교해서 시자의 작업을 보면, 그는 분명히 건축에서 예술성이 지닌 한계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경계하면서, 자신의 작업에서 건축이 지닌 그 고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디자인이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계획으로서의 작업 안에서 시간 혹은 역사와의 대화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총체적으로 보아야 이해가 가능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모호함과 신비로움만으로 그의 작업을 감상하고 평가하던 사람들에게는 그의 작업에 담긴 보다 더 깊은 내면의 기준과 가치는 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 할 수 있다.



그림 4. Rectorado de la Universidad de Alicante 전경

여기서 다룰 작품인 ‘알리칸테 대학 행정 및 교수연구실’은 그런 점에서 조금은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 조형성과 감성만으로 평가되던 다른 작업과는 분명히 무언가는 더 차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의 장점인 매스의 조형적인 매력은 상대적으로 감추어져 있거나 절제되어있고, 공간에서 빛의 사용과 동선의 흐름 역시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시선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소 과도하리만큼 원칙적이고, 배치가 주는 자세가 매우 경직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은 제한되어 있으며 과도하다 할 만큼 심각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다른 그의 걸작에 비해 분명히 덜 거론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시대 건축론에서 또 하나의 거장인, 케네스 프람프턴이 만든 시자의 특집에서는 바로 이 작업이 책 전체의 표지로 등장한다. 프람프턴은 시자의 의자 작업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비교적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서술을 하고 있다. “시자의 의자는 의자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유명 건축가들이 만드는 의자처럼 과장된 디자인도, 필요 이상의 부담스러운 상징성도 없는 그저.. 바로 그런, 의자를 만든 것이다. 의자가 지닌 기능에 충실하면서 더하거나 제한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정확한 의자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범한 의자로 부터 그의 건축 이야기를 알고 싶어지게 된다. 건축의 깊고 오래된 사실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화같이 신비한 건축이 궁극해지는 것이다.



그림 5. Alvaro Siza Chair

알리칸테의 이 건축은 대학의 마스터 플랜을 충실이 이해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편안한 건축이다. 이것은 그에게서 가장 확고부동한 건축설계를 진행 할 수 있었던 것

이고, 순수한 건축만의 디자인을 건설로 이행한 것이다. 즉 건축이 건축답게 디자인 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다.

이 작업은 그의 다른 작업과는 달리 지극히 엄격하고 제한된 평면과 입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 그대로 답습되고, 계승되는 알로 로시의 작업과 유사하기도 하고 혹은 다소 극단적인 신 합리주의자들로 평가되는 조르지오 그라시나 안토니오 모네스티롤리의 작업이 연상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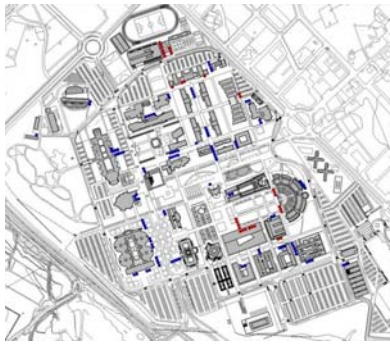


그림 6. Universidad de Alicante, Master Plan



그림 7. Rectorado de la Universidad Court View



그림 8. Casa per Anziani Galliate, 1982 Antonio Monestiroli

시자는 건축을 디자인 할 때 ‘일반성’에 깊이 관여하지만 ‘중립성’과는 절대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 그의 철학적 관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건축에서 ‘장소’와 ‘지역’이 도시 전체의 ‘총체적인 일반성’과 정교하고도 내밀한 ‘연속성’을 말한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전체성은 일반성이자 보편성을 동시에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시자의 디자인에 있는 가장 독특한 가치는 매일의 일상적인 상황을 다루면서도 신화적이고, 또 설화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내포하기까지 한다. 공간과 시간성에 있어서도 정확한 지점을 설정하거나 지향하지 않으며, 현실과 초현실적인 면이 공존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에게 혹은 그의 건축에서 시간은 가까운 아방가르드 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의 디자인의 여러부분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듯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후에 나타날 현상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시자에게서 나오게 될 그의 다음 작업은 쉽게 예상 할 수 없으면서도 기대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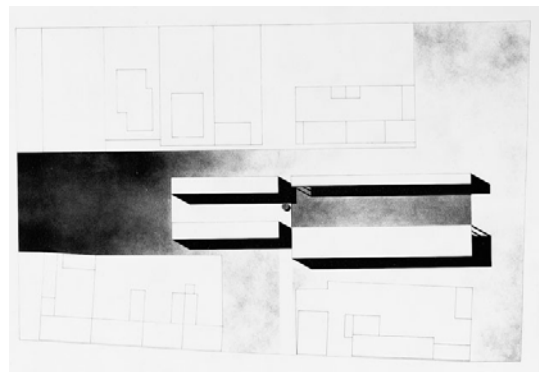


그림 9. Casa per Anziani Galliate, Plan

새로움에 대한 전통을 추구하는 시자에게서 특별히 대학에 대한 그의 디자인 개념은 다른 프로그램의 작업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다. 즉 대학은 분명한 도시의 어휘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럽에서 오랜 세기를 거쳐 설정된 복합적인 개입과, 신화적인, 그래서 중첩되고 혼합되어 이루어져 온 것이고, 때로는 반대적인 영향력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결국 역사 속에서 커다란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 판단하게 만든다.



그림 10. Alvaro Siza, Image Sketch

시자에게, 대학 캠퍼스에 대해 몇 가지 우연적인 직감들, 혹은 첫 인상들은 전체적인 창작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대한 것이다. 즉 첫 인상은 그에게 과거와 기억에 대한 연계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되는 순수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된다.

정형성이란 기존의 지식을 단계적인 실행의 방법으로

해외 우수교육시설 소개

자신의 체감된 이행을 풀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늘에서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시자 본인에게서부터 무의식적이지 자생적인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그에게 그 다음번의 프로젝트에서 마주하게 될 안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축적되는 경험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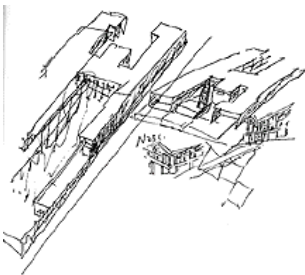


그림 11. Alvaro Siza, Volume Sketch

시자는 그의 건축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술의 여러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대입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드로잉이라는 매체의 강력한 힘을 사용한다.

그에게 드로잉은 건축이 구체화되기 위한 과정에서 선 경험과 기억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단순 매체 이상의 작동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그와 작업간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말한다. 그에게 ‘소격효과’는 그의 원칙적인 주장만큼이나 중요하다. 그의 디자인은 전체에서 시작되나 다른 면에서 보면 지극히 부분적인 면에서 전체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작업과는 매우 가까운 측면도 있어서 그에게는 작업에서 극장적인 재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작업에서 ‘해석의 여지’를 언제나 남겨두고자 하는 편이다.

그는 그의 건축이 분석에 의해 자동적으로 추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한다. 시자에게 있어서 건축을 배우는 것은 한 순간에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혹은 그에 연계성에서 열등감적인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 콤플렉스는 그 작업의 특징적인 면을 만들게 해준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직선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단선적이거나 직선적이지 않은 그의 생각은 다른 문제 해결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한다.

시자는 스스로에게, “나의 개인적인 관점과 작업사이에서 분명한 다름, 혹은 어색함은 이것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진정한 조형적 건축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자의 작업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도시는 그 현실에 있어서 고립되어있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기억에 단단히 연결되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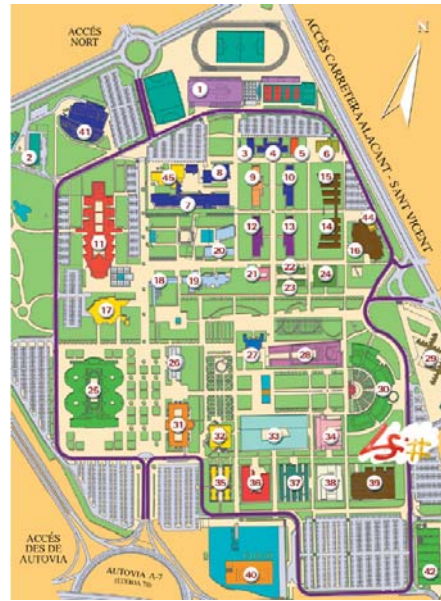


그림 12. Universidad de Alicante, Map

알리칸테의 대학 주요 건축물인 이 작업은 1998년에 23,000평의 규모로 건설된 것으로, 그의 다른 작품에 비해 적게 거론되는 면이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섬세한 감수성과 눈에 띄는 창조적인 조형미가 덜 보이고, 시적이거나 신화적인 상상력도 덜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건축물에 직접 다가가, 눈도장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작품에서 놀라운 절제감의 아름다움과 순수하고도 고귀한 정서를 진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대학은 1545년에 Pabal Bull로부터 시작된 Orihueladml 아카데미를 1610년에서 1808년에까지 전통적으로 이어가면서, 1968년에 결국 Center for University Studies (CEU)를 바탕으로 대학을 정비하여 1979년에 다시 새롭게 출범한 발렌시아의 대표 대학중의 하나다. 현재는 50여개의 전공에서 약 27,0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지역적인 위치로는 라스베이그 산 빈센페에 위치하며, 이곳은 라바사의 정규군 공항이 있었던 곳이다. 시자는 대학의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전체 대지의 일부에서 대학의 학장 및 교수들이 사용할 오피스와 행정업무를 담당할 건물의 디자인을 요청 받았다.

마스터 플랜의 개념에서 이 장소는 대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중심축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전체 개념은 밀도 있는 격자형 체계를 이루고 있다. 대학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 강의실 두 개의 동을 동, 서측으로 배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만들고 있으며 일련의 건축들이 좌, 우로 배치되는 곳이다. 즉 도서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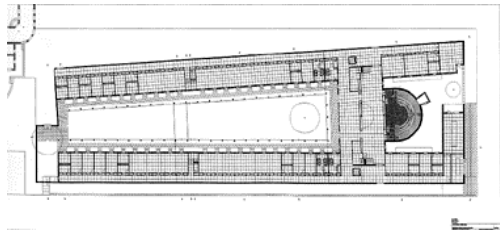


그림 13. Universidad de Alicante, Plan

회과학대학, 사회적 공공클럽, 경영대학, 평생대학이 그 주변을 둘러치고 있다. 시자의 작업은 과거 공항 시설에서 사용 되었던 컨트롤 타워의 바로 옆 대지에 위치한다. 방치 되어있는 타워를 고려해야하면서도 마스터 플랜의 중심축에 적절히 배열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자는 매스의 우측의 끝에는 동측의 대형 강의실에 바깥쪽 입면선을 맞추었고, 서측으로는 컨트롤 타워의 광장을 고려하여 축의 정돈을 설정한다. 전체 중심축의 내측에서는 평행선의 입면정리를 지켜서 중앙광장의 유형을 보다 확고히 구축하였고, 서측의 타워를 위해서는 약간의 이격과 공간의 배려로 작은 광장이 하나 더 보호 되게 하였다. 매우 신중하고도 배려가 있는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방치되었던 비행기의 컨트롤 타워는 다시 대학 전체의 상징성과 중심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대지의 남쪽 끝 부분에 맞닿아서는 타워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고도상의 높이가 점진적으로 낮추어져야하는 법적인 문제도 있는 지역이다.

본 프로젝트의 주 매스는 매우 단조로우나 거의 유일한 조형적 이미지로 우측 끝에 위치한 커다란 개구부는 상징성이 강한 돌출된 발코니의 계획부분으로 구성되어있고, 이곳은 2층과 이어져 있어 다시 내부의 컨퍼런스 룸과 연결되어있는 곳이다.



그림 14. Side Elevation

교수실은 마치 중세 유럽의 폐쇄된 요새 같은 오래된 이미지다. 건축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자신을 강하게 방어하는 자세다. 이런 건축적 타이포로지 혹은 기능적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 어렵지 않게 스페인계 아라비아인들의 수법과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은 역사와 상징, 등의 그 무엇보다도 치열한 기후로 부터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리는 기후와 환경에 건축이 따라야 할 가장 겸손한 모습이자 가장 지혜로운 답습인 것이 진리임을 다시

금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알리칸테 대학의 전체 마스터 플랜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중심축에서 건축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하기도하는 면이 있다.



그림 15. Main Facade

유일하게 조형성이 강조되어 입구임을 상징하는 큐브 형태의 커다란 개구부는 대지의 동북쪽에 위치한 캠퍼스 주 진입으로부터 사람들을 맞이하는 시아의 전망이 열

리는 곳이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거대한 화강암 불력으로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의 개구부는 직각으로 이어지는 매스와 중앙광장 전체의 진입을 강조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이 건축은 매우 제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특히 건축의 동북쪽 끝에는 보행진입이 매우 절제되어있다. 이곳에는 건축의 내부에서만 사용하게 될 작고 제한된 그러나 조경과 함께 소담스런 중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저층부에 차고와 배달을 위한 장소로 운송 전용의 램프로 연결되어있다.

메인 볼륨에서는 이중으로 되어있는 중정을 품은 건축물의 배치유형이 기본 알파벳의 하나인 H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유형은 단순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용도의 구분을 그리고 위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누어져 있으나 서로 통해 있는 각각의 정원은 스스로를 기능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분류하고 결정짓는다.

때문에 두 개의 중정에서도 우측에 있는 장축형 중정은 좀 더 큰 규모를 이용해서 관리행정 사무실의 특성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어있다. 그에 반해 작은 중정은 대표적으로 기능성을 동반한 사회적 공공의 기여 개념에서 설정되어있다. 두 개의 중정을 이어주는, 작지만 이미지가 강한 매스에는 수평적인 개념이 들어있고 이곳에서는 보편적인 용도로의 공간이 사용되어지며, 그래서 마치 극장의 포이어와 유사하기도 하다.



그림 16. Cube Image

우리는 여기서 토스카나식(式) 안마당(cortille)과 혹은 스페인 주거 형식의 장점인 파티오(patio)를 쉽게 연상할 수



그림 17. Court Elevation

있다. 그 활용과 정서는 은유적이지만 매우 분명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아카데미의 측면에서 더 오랜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고대 로마의 저택에서 사용되었던 홀 식 안뜰 (compluvium)을 기둥이 없이 둘러싼 안마당(atrium)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과 진입에서 복합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 진입으로부터 건물의 입구까지 방문객들은 중정의 전체 길이를 통과해야 한다. 다소 거친 듯이 표현되는, 즉 깔끔한 페이빙 마감이 없이 자연의 흙 마당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다소 거칠기까지 한 이 공간은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현실과 초 현실의 만남과 같기도 하고, 서투름과 익숙함의 교우 같기도 하며, 완성과 미완성의 여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은 공간이다. 무언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공간이다. 중앙에는 이렇다 할 조형물과 상징적인 나무 한 구루가 없다. 편안한 잔디 한쪽도 없고, 그 어떤 조경의 잔재주도 없이 그저 잘 흘러져 있기만 한 이 장소에는 황갈색의 모래만 단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케이드의 솔직한 모습이 더욱 더 황량한 분위기로 표현된다. 그러나 차분하고 다소곳이 열린 이 마당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청빈함과 단호함마저 느껴진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삶으로 이해되는 작은 도시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묻어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건축은 그만의 마술 같은 매력이 또한 만들어진다.

상부레벨에서 외부로 연결된 다리 같은 통로는 건축물의 자연스러움을 반전시키는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칸막이는 두 개의 중정을 나누거나 남북으로 이어지는 매스의 전개에서 상대적인 전환의 힘이 매우 크게 형성된다. 각각의 중정에서 보면 그것은 저 너머를 상상으로 떠올리는 하나의 상상적인 스크린으로 보인다.

시자에게는 언제나 건축을 빛의 조율장치로 만들 수 있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있다. 자연스럽고도 깊게 매달리는 음영은, 그리고 스테코로 마감된 콘크리트 재료의 소박한 사용은 좁으면서도 길게 열려있는 창을 통해 빛이 신

비롭게 들어오게 한다. 주 복도의 공간에서는 창이 전혀 없어 감성적인 측면도 있고,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인공적인 빛의 활용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문이 중정을 향해 거의 제거된 듯이 보이게 만든다.

시자는 재료에 있어서 무척이나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에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시도하지 않아서 프로젝트마다 커다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시자는 매 순간마다 가장 적절한 재료의 특성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한다. 이 작업에서 외벽의 마감은 분쇄시킨 파 벽돌을 섞은 스테코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는 세라믹 타일을 바탕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적인 마감방법이 현대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억을 다시 절제된 재현의 욕망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창문과 문의 프레임은 나무와 철이 복합화 된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길게 이루어져있는 내부의 통로의 분위기는 마치 캄마르고 조금은 여윈 듯 한 느낌으로 이어져 있다. 벽들은 창백한 레몬색의 타일로 결려있고, 1층의 레벨에서는 공적인 공간 안에서 돌 마감의

바닥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층의 레벨에서는 나무로 마감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의 플로어에서도 몇 가지의 위계를 고려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포이어처럼 보여지는 중심 부분에서는 2개 층의 층고를 지니고 있고, 전체적으로 낮고 협소하게 느껴지던 공간에서도 순회하듯이 열려있는 보이드 공간이 전체를 환기시킨다. 이것을 더 강하게 돕는 것은 건물의 두께에 적절하게 부드러운 빛을 펼쳐내게 만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런 공간과 매스의 표현은 하나의 표식으로 독자적인 개체성을 드러내고 단 두개 층의 수직적 연결의 단순함에도 위엄과 고귀함의 의미를 적절하게 만들어준다.



그림 18. Interior Image 1



그림 19. Interior Image 2



그림 20. Interior Image 3

공 빛을 사용해야만 하도록 만든 복도에서 생각보다 인상적인 경건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밖에서 보면 거의 요새 같은 이 건축은 외부로 향한 창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그림 21. Interior Image 4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시자는 화려한 조형적 기술은 드러내지 않지만 최소한에 대한 숨은 노력은 항상 존재한다. 기본 콘크리트 구조는 기둥과 경량화를 위해서 두 웨이슬라브로 형성되어있고, 중도적이고 보편적인 칫 수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개구부를 결정한다. 이런 구조적인 단순함은 외벽의 환경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도 매우 유리하며, 타공 벽돌을 사용함에도 효율적이고도 적절하다. 또한 이것은 단열을 위한 외벽의 조치를 위해서도 유리함을 지니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단순화로 시작되는 계획의 방향은 기후의 불리한 조건을 프로젝트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우 현명한 출발 점이기도 한 것이다. 외벽의 마감은 분쇄된 벽돌가루를 함유한 스티코로 이루어져있지만 이 지역의 기초에는 각 1.8m 높이의 돌 기초가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것이 벽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2. Interior Image 5

시자는 알리칸테 대학의 교수 연구실 건축물을 통해 우

리에게 그의 건축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와 사물 혹은 대상과의 관계, 이것은 그에게 건축가로써의 필수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개입마다 그는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다. 그러나 고정된 답이 아닌 새로운 정답을 찾는 것이다. 건축가의 시선에서 보는 도시에 대한 개입, 이것은 단순히 물성을 비례로만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전체를 읽기 위해 단순해지는 것 이것은 건축에서도 중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조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그것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유럽의 오랜 역사지구에서 발견하게 되는 평범하고도 대부분 유사해 보이는 집들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보이지만 지루함을 느끼지는 못한다. 바로 그런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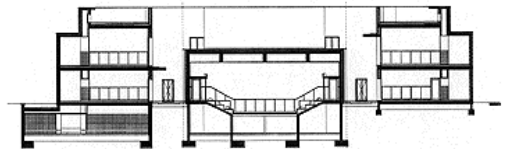


그림 23. Section

우리는 때때로 건축이 예술과 같이 평가되어지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술이 건축에서부터 출발될 수는 있어도 건축이 예술이 되려고 노력한 적은 20세기 이전에는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는 변화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다. 건축의 변화는 예술의 변화와 다르다.

이것은 매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예술은 개인의 의도에서 출발할 수 있으나 건축은 기본이 공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쓸모없음’이 ‘쓸모있음’ 보다 더 귀한 평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

건축의 출발은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특정한 수단에 불과하다. 건축을 예술의 범위에 포함하게 되면서 어쩌면 건축만의 본질을 한정 짓는 것이거나 스스로의 가능성에 한계를 짓고 심지어는 오히려 문화의 부수적인 위치로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건축은 유용함 하나만으로도 그보다 위대할 수 있다. 예술은 가치가 중립적이고 해악이 없다. 그러나 건축은 드러내는 가치의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으나 해악을 줄 수

해의 우수교육시설 소개

있다는 점을 우리의 인식 속에서 흐려지면 곤란하다. 또한 그 평가에서 건축은 아닌 여타의 산업과 패션 디자인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더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알바로 시자의 조형성에 우리는 때때로 감탄하기도 하고, 그가 스스로 건축과 예술의 커다란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시자 스스로는 건축이 21세기 여러 예술들 중에 그저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 믿고 싶다. 예술은 오로지 예술가 혼자서 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지만, 건축은 사회와의 연관관계를 생산자가 단독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은 건축에서 양식도 이즘도 심지어 경향조차 없는 그래서 어쩌면 무척이나 혼탁한 건축의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건축 만으로의 미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알바로 시자의 끊임없는 노력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건축이 지닌 진지하고도 내밀한 의도들을 우리 스스로의 편의대로 그럴듯한 예술성에 혹은 가벼운 감상적 유희에 쉽게 매도해 버릴 수 있다. 건축은 그 생리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즉 일종의 진화과정에서 이해되는 변화다. 변화는 생산물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돌연변이 이기도하지만 언제나 더 완전한 형태를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전진하는 진화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진화과정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과도한 허울과 과장된 제스추어를 스스로 견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표현력을 위한 과도한 경향들은 결코 증명되지 않는 것들일 뿐이다. 결국, 건축에서 완숙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사랑스런 거장 알바로 시자는 지금 동시대에서 ‘건축가’들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이 기억난다. “건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상투적인 방법에만 확신을 두고 있다. 다양한 언어의 조작적 통합화는 우리가 스스로를 커다란 창고의 한 부분으로 버려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그림 24. Self Image Sketch

그리고 그가 프리츠커 상을 받으면서 했던 언급도 간과할 수가 없다.

“모든 디자인은.. 그 속에서도 건축은 그 프로젝트만의 뉘앙스 안에서 변형되는 이미지의 그 분명한 순간을 찾기 위해 혹독하고도 엄격한 시도, 바로 그 혹독하고도 엄격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여야만 한다.” // limjongyup 씀/2012/08/21

저자약력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1920년대 러시아 아방가르드 건축을 공부하였다. 장 건축에서 김병현 선생님 아래에서 실무를 하였고, 밀라노 국립건축대학에서 ‘극장과 광장’을 연구하였다. 건축창작에서 사물과 건축의 관계성에 집중한다. 그로인해 ‘일상과 환상’, ‘의도와 소통’, ‘과장과 절제의 경계’가 건축이론연구의 주된 관심사다. 이탈리아 국가건축사이며 ‘스튜디오 마리오 벨리니’와 ‘해안종합건축사무소’에서 본부장으로 건축실무를 쌓았다. 작품으로는 나뚜찌 본사사옥, 상하이 엑스포 ‘한국 기업관’과 한강의 ‘세 빛 등등섬’, ‘인천 아트 플랫폼’, ‘담재현’ 등을 디자인 하였다. 숙명여대에서 미술대학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교수로 있었고, 현재는 인하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학회 활동으로 (사)한국교육시설학회 이사로 재임 중이며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